

아시아, PTA 설비 신증설 붐

三菱・三井 인도네시아에 건설 ... 97년전후 공급과잉

아시아 PTA 신증설 계획 (단위: 만M/T, 년)		
구 분	시 기	증설규모
인도네시아		
三菱化成	96중반	25
三井油化	97초	35
대만		
CAPCO	97	25
ICI대만	97	35
한국		
삼성중합화학	95	25
삼남석유화학	95	25
대한유화	96	25
고려석유화학	94	15
말레이시아		
Amoco	95	50
중국		
Amoco(주해)		35
		(기업화조사중)
三井油化(천진)	97	25(同)
遼陽		25(同)
儀征		25(同)
태국		
대만 東雲그룹	95	25

아시아에서의 합섬수요 팽창을 예상한 고순도텔레프탈산(PTA) 생산설비의 신증설 계획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2개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PTA 설비신증설에 나서고 있다.

이에따라 대부분의 플랜트가 완성되는 97년을 전후 아시아시장 전체가 대폭적인 공급과잉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일본의 三菱化成은 지난 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근교의 메라크지역에 있는 PTA공장의 영업운전을 시작했는데 생산능력 25만톤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최대 규모다. 이번 조치로 96년 여름엔 인도네시아에서 50만톤의 PTA를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게 된다.

三井油化도 최근 97년 완공을 목표로 미국 Amoco・三井物産과 공동으로 메라크지역에 35만톤의 공장신설을 결정했다.

한편,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전체의 PTA 수요는 작년 600만톤에 달해 연율 7%의 신장을 기대할 수 있어 2000년엔 1000만톤을 초과할 전망이다.

<화학저널 1994/5/2>